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미물도 때를 얻어 스스로 즐긴다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주님의 은총을 노래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물과 바람과 햇빛과 만나 어김없이 꽃을 피워내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도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우러르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생명의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치 숲 검댕이 묻은 손으로 깨끗한 옷을 매만지는 철부지처럼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이기심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손과 발도 닦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일그러졌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더 큰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살전2:19-20	인도자
----------------	-----------------	-----

♠ 교 독 문	49. 빌립보서 2장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방문성 장로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212. 너 성결키 위해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벧 2:9	인도자
------------	----------------	-----

	II. 약1:22-27	박효선 권사
--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김재흥 목사
-----------	-----------------------	--------

	II. 지금은 우리가 인류	김기석 목사
--	----------------------	--------

거둠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447. 오 신실하신 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알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숨겨진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기심과 정욕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해주셨으니, 이제 최선의 열정과 기쁨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겠습니다. 사랑의 말보다는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장로 은퇴 및 취임 감사 예배	4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염혜영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건호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이동천 집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훈동	송동준	임창선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하현철	유영남	구명자	안정숙

너는 내 중심

●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교우들은 친교실에 내려가 다과를 나눴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어떤 덩어리를 토해낸 것 같은 홀가분함으로 교우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분이 정성껏 준비해오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시리얼을 준비해오신 분도 계시고, 달콤한 말린 과일을 가져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접시에 담긴 말린 과일은 망고와 매실 그리고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분은 마늘을 닮았다 했고, 다른 분은 까지 않은 은행 알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복순 권사님이 혼잣말처럼 말하시더군요.

“보는 것도 이렇게 제가꿈이니 듣는 것은 말해 뭐해.”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권사님은 자탄하듯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선입견’이니 ‘선택적 지각’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에게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슬픔의 경험을 반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겉돌기 일쑤입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허전함이 더한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대화의 명수는 자기 생각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건성으로 들으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건디기 어렵습니다. 주님께 하찮은 존재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찮은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한 데, 주님은 우리말에 귀를 기울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 동화작가이면서 잡지 《시와 동화》의 발행인인 강정규 선생님이 갖다 주신 잡지를 읽다가 백우선 님의 <배꼽>이라는 동시조와 만났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자마자
몸 한가운데에다
표시를 해 놓았다

너는 내 중심,

평생 안 지워지는 도장을
콧 찍어 놓았다

매사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한 저이지만 가슴이 몽클해졌습니다. ‘너는 내 중심’. 어머니의 사랑에 견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 말고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사랑의 중심의 포기입니다. 스스로 중심이 되려 할 때 인간관계에 남는 것은 상처이지만,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워주려 할 때 흔적처럼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 동시조를 보면서 저는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이어주는 우주의 배꼽입니다.

● 교우들에게 나눠드리고 남은 부활절 달걀을 들고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거리에 나갔습니다. “달걀을 드리면서 뭐라고 인사해야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 다들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구멍가게에도 들어가고,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군인 아저씨에게도 전합니다. 그런데 형석이가 갑자기 어딘가로 신나게 달려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와플 집에 다녀왔습니다. 자기를 예뻐하는 아줌마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아줌마는 그날 받은 달걀 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리고 계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경쾌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3)(석)

가지가 잘린 떡갈나무

나무여, 그들이 너를 잘라 버렸구나.
너는 너무도 낮설고 기이한 모습으로 서 있다!
수백 번 겪은 고통 끝에
남은 건 고집뿐이로구나!
나도 너와 같다, 잘려 나가고
고통받은 삶을 떨치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을 던고 일어선다.
내 안에 있던 부드러움과 연약함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조롱당했다.
그래도 나의 존재는 파괴되지 않아
나는 자족하고 화해했다.
수천 번도 더 잘린 나뭇가지에서
나는 끈질기게 새 잎을 내민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꺾끗이 나는
이 미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 헤르만 헤세

* 경직되고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생명에 가깝지요?
그렇지만 시간의 여행자인 우리는 갑각류처럼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그
것을 뒤집어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봄별을 받으면
여전히 새 잎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총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틀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박병선 방현복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안종일 정현주 임승동 백혜숙 박성수 김애경 김용원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옥경 박옥순 박정숙 고광승 이춘희 김시영
 박홍엽 김희진 박홍재 한인철 조윤숙 문홍일 양재성 임미심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하정석 이명희 서재홍 박현우 정미경 김승현 김수진
 이동천 황경순 김남중 오복순 김창원 정지은 왕수명 김성자 박정석
 고숙이 유창호 서정순 이희균 김영한 권미정 박상규 이병철 김현진
 권혁순 박혜경 박범희 박미영 이은자 유혜경

감사헌금:

고숙이 임 영 정경례 김철수 유영남 이동천 양미란 김승현 김수진
 박찬정 박미영 박범희

생일감사헌금: 박상규 구도헌금: 문금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정 두 리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교 회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김 진 경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장로 은퇴 및 취임** : 오늘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윤정덕·강인식 장로님 은퇴 및 방문성·한상익 장로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3. **기도의 밤** : 6일(수) 저녁 7시 30분에 4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4. **연회** : 서울 연회가 7일(목)과 8일(금)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정동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5.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6. **평화교육세미나**: 감리교 평화교육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교회학교 평화교육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4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5주간 열립니다. 시간은 저녁 6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평화의 일군이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7. **신앙실천** : 어느 곳이든 희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이지훈 차덕철

* 헌화 : 최숙화 권사 (어머니 이갑재 권사 생신 축하)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